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영역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Schools Managing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and Their Educational Courses

오 병 욱* 윤 미 연**
Oh, Byeong-Uk Yoon, Mi-Youn

Abstract

It has already been four years as of 2013 since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was first introduced following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However, no investigation had been made yet on whether the system is properly being managed in practice according to the presented standards, guidelines, and policy direction. Hence, an in-depth investigation and analysis were called for. In line with this, documents were researched, deliberation meetings of experts were held, and the system pilot was tested to develop indices to investigate the state of block-scheduled classes and classes for each student's academic level for the educational classes field. For the school management field, we developed indices to investigate the teachers' organization and their division of labor, administrative officers and work reduction, improvement of teachers' expertise, and the guidance of the students' school life. Based on the indices, we investigated the state of 24 schools, which manage an advanced school system, nationwid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has now reached the settling stage, which is beyond the introductory stage, and that it needs to be systematically supplemented for it to be settled in a stable manner.

키워드 : 교과교실제, 운영실태, 학교운영, 교육과정

Keywords :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Operational Conditions, School Management, Educational Course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교육은 산업화 이후 국가에서 제시한 통일된 교육과정을 따라 충실하게 작성된 교과서의 내용을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미래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방식이 효과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교육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학교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수준별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적성, 흥미를 반영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단위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시설환경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설환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으로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2009.05.21)」을 발표¹⁾하게 되었고, 이후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과교

* 정회원, 한국교육개발원 팀장, 건축학박사, 교신저자
(byeonguky@kedi.re.kr)

** 정회원, 한국교육개발원 팀원, 청주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연구·지원특임센터에서 추진한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연구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음.

1) 2009.05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

실제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2월에는 소규모 학교 등 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겠다는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2011.02)」이 발표²⁾되면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수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팽창은 정부의 목표 물량은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매년 늘어나는 신규학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 대한 관리나 실태조사 등을 통한 피드백 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2013년 현재 교과교실제 정책이 4년차 운영단계에 들어섰지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기준이나 가이드,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운영학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를 방문하여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과교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교과교실제를 일부 교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과목 중점형 운영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교과를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선진형 운영학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별 1개교 이상 표집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의 지침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2012년 2학기 기준으로 선진형을 1년 이상 운영한 학교가 없는 시·도교육청은 대상에서 제외³⁾하였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조사 영역은 교과교실제 정책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연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교과교실제 컨설팅 가이드」⁴⁾에서 제시한 영역을 준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영역으로 한정⁵⁾하였다.

2) 2011.02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
 3)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강원도교육청,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과교실제 선진형을 1년 이상 운영한 학교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대상에서 제외함.
 4)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연구·지원센터에서 교육부의 교과교실제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 제공하는 교과교실제 운영 지침서임.
 5) 교과교실제 컨설팅 가이드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 및 지침을 학교운영, 교육과정, 환경조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음.

2. 표집대상 선정 및 실태조사 지표 개발

2.1 표집대상의 선정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학교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2학기 현재 교과교실제 선진형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24개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하였다. 교과교실제 선정 연도별로는 2010년 운영학교 16개교, 2011년 운영학교 8개교이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3개교이다.

Table 1. Status of investigated schools(표 1. 조사대상 학교 일반 현황)

운영 연도	학교급	지역	대상 학교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전체 학생수
2010년 운영 학교	중	서울	BH	20	31	616
			SN	24	30	719
		대구	DS	15	31	458
		울산	HJ	28	31	864
		경기	AS	21	36	762
		전북	HS	12	29	351
	경남	JY	14	35	488	
	고	부산	SD	36	39	1,411
		대구	YJ	33	32	1,046
		광주	GD	28	39	1,079
		대전	DB	19	33	618
		경기	DB	30	38	1,149
			SS	30	38	1,138
		충남	ND	24	31	735
		전남	MT	24	33	787
		경남	MY	30	34	1,018
2011년 운영 학교		중	부산	KM	18	36
	대전		DD	21	36	752
	울산		UD	20	30	594
	경남		GC	16	34	544
	고	인천	HS	31	36	1,120
		충북	YC	23	34	777
			CY	30	32	968
		경북	SJ	12	29	347

2.2 실태조사 지표 개발

교과교실제 관련 선행연구,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 선정지표, 교과교실제 컨설팅 가이드 등을 분석하여 교과교실제 정책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 착근(着根)된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항목을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영역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운영 영역의 경우 교과교실제를 적용하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내용들을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교육과정 영역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유도할 수

Table 2. Main items researched a priori(표 2. 선행연구 주요 항목)

자료명	학교운영	교육과정
2012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실태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	-교무조직 및 업무분장 -교원의 활용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수준별 수업
2010~2011 선진형 운영학교 현황조사 지표	-교원업무지원 -교사전문성 -생활지도 -교원조직 및 운영 -교원업무 및 수업지원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방법 -수업운영
2010~2011 우수학교 선정지표	-교무조직의 합리화 -행정요원 지원	-교육과정편성 -학생중심의 수업운영 -교실수업개선
2009~2012 컨설팅 가이드	-교무조직 -교과협의회 -교사연수 -홍보 -행정요원 업무분장	-수준별 이동수업 -블록타임수업 -교수-학습방법 -학생 생활지도

Table 3. Main indices used for the practice investigation and its content (표 3. 실태조사 지표 주요 항목 및 조사내용)

영역	항목			조사내용
	초안	→	완성	
학교 운영	학교조직 및 운영	내용 보완	교무조직 및 업무분장	-교무조직(교과부서 40%이상 편성 여부) -교과부서의 교과중심 업무분장
	행정지원	내용 보완	행정요원 및 업무경감	-행정요원의 채용현황 -행정요원의 업무분장
	-	항목 추가	교사 전문성 신장	-전체 교직원 대상의 연수 계획 및 운영형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별 연수 및 협의회
	생활지도	내용 보완	학생 생활지도	-학생 정보전달 시스템 활용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운영
교육 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항목 삭제	-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준별 이동수업	내용 보완	수준별 수업운영 현황	-운영과목 -운영학년 -확대학급(N+N) 운영형태
	블록 타임제	내용 보완	블록타임 수업운영 현황	-운영과목 -운영형태 -교수-학습 지도방법

있는 내용들을 주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었다. 각각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항목은 <표 2>와 같다.

도출(導出)된 항목을 토대로 실태조사 항목 및 세부 조사 기준 등을 설정하였으며, 교과교실제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교원들과의 세 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을 거쳐 실태조사 지표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지표는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북의 교과교실제 운영 중학교를 임의 선정한 후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현장 검증 결과를 <표 3>과 같이 반영하였다.

학교운영영역은 교과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나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전문성 신장 항목을 추가하였고, 교육과정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에 조사 항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다.

3. 운영실태 조사 · 분석

표집대상으로 선정된 24개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2학기 동안 표집대상 24개교를 방문하였고, 실태조사 지표의 항목 및 조사 내용에 따라 2012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영역에 대한 자료조사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은 영역별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3.1 학교운영 영역

가) 교무조직 및 업무분장

표집대상 24개교 중 교무조직 내 교과부서가 40% 이상 편성된 학교는 20개교(8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1년 교무조직 내 교과부서가 40% 이상 편성된 학교가 19개교(79.1%)였던 것보다 1개교만 증가되어 연도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교무조직에 따른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교과부서



Figure 1. Subject organization by year (그림 1. 연도별 교과부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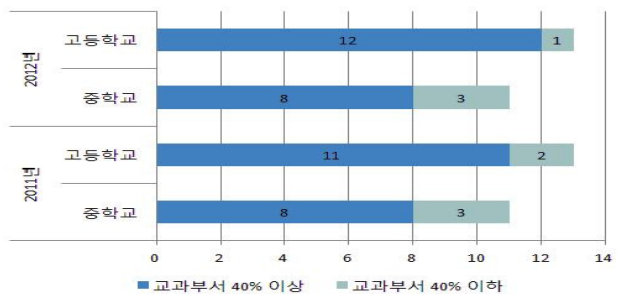


Figure 2. Subject organization by school type and year (그림 2. 학교급별 교과부서 조직)

6) t-test 검증결과 유의확률이 0.719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에 타(他) 교과와 교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교과 중심의 업무보다 행정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아직까지는 교과업무와 행정업무를 완전하게 분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과별 상주 교사가 1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교과중심의 교무조직보다 행정중심의 교무조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나) 행정요원 채용 및 교사 업무경감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과교실제 예산으로 지원한 행정요원의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1년에는 평균 2.6명을 채용하였으나 2012년에는 평균 2.3명을 채용하여 채용 인원이 2011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행정요원을 3명 이상 채용한 학교도 2011년 15개교에서 2012년 9개교로 줄어들었으며, 2012년 현재 최대 채용인원은 4명(0.04%), 최소 채용인원은 1명(0.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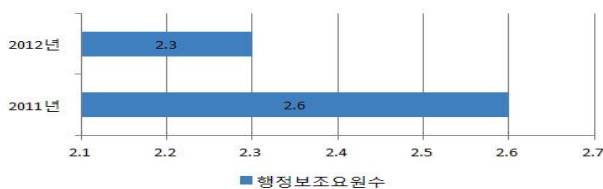


Figure 3. Number of administrative staff per school by year (그림 3. 연도별 학교당 행정요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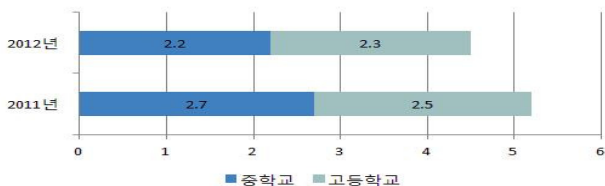


Figure 4. Number of administrative staff per school by school type and year (그림 4. 학교급별 학교당 행정요원 수)

지역별 행정요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집대상이 포함된 14개 시·도교육청 중 2011년에는 경남이 평균 3.3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한 반면 서울은 평균 1명으로 가장 적게 채용하였다. 2012년에는 대전, 울산, 전남, 경남이 평균 3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하였고, 광주와 경북이 평균 1명으로 가장 적게 채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행정요원 지원에 대해 학교장은 물론 일반 교사들까지도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매년 시·도교육청별 행정요원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채용 인원이 감소하

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행정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었으나, 평균 9개월 정도의 인건비 지원으로 인한 행정요원의 잦은 교체와 짧은 채용 기간으로 인한 전문적인 업무 능력 소양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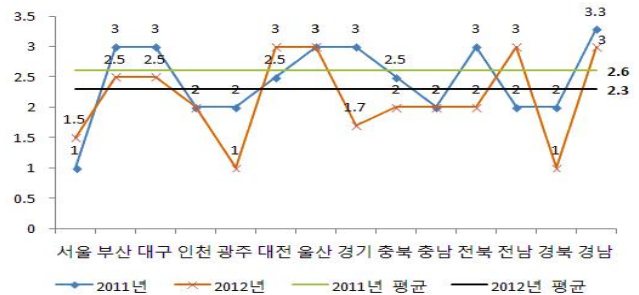


Figure 5. State of administrative staff recruitment by region and year (그림 5. 지역별 행정요원 채용 현황)

다) 교사 전문성 신장 노력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5개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연수 및 협의회⁷⁾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1년에는 평균 5.7회를 실시하였으나 2012년에는 평균 6.5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⁸⁾되었다. 주목할 점은 연수 및 협의회 현황을 학교급별로 분석하면 중학교의 경우 2011년 평균 6.1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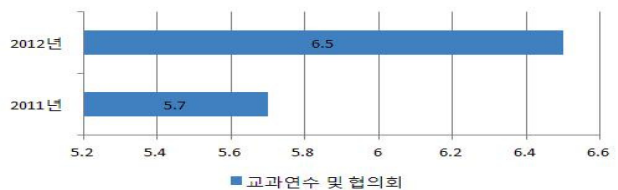


Figure 6. Number of subject training and deliberation meetings held by year (그림 6. 연도별 교과 연수 및 협의회 실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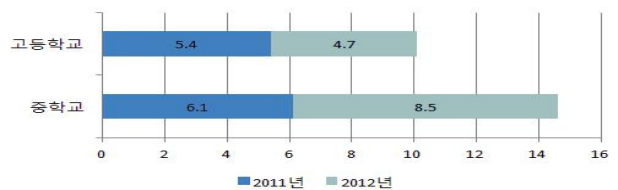


Figure 7. Number of subject training and deliberation meetings held by school type and year (그림 7. 학교급별 교과 연수 및 협의회 실시 횟수)

7) 2012년 2학기를 기준으로 주요 5개 교과(국, 영, 수, 사, 과)에서 실시한 24개교의 연수 및 협의회 합계 횟수이며, 평가 전·후 정기적 협의회(평가계획, 출제, 채점 등) 및 교재선정, 방학과제 등의 협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8) t-test 검정결과 유의확률은 0.315로 유의수준 0.05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서 2012년 평균 8.5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1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평균 5.4회에서 2012년 평균 4.7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1년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교과별 연수 및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동료교사간의 협력 및 교수-학습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그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교실제 운영 1차년도에는 교과교실제 정책 이해, 교과교실 환경구축, 기자재 구입 및 활용 등과 같은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연수가 주를 이룬 반면, 교과교실제 운영 2~3차년도에는 교실 수업 개선, 교수-학습 방법, 각종 수업 자료 개발 등과 같이 수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점차 교사들의 교실수업개선 및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정보전달 및 학생 생활지도

교과교실제 시행함에 따라 학생 일과에 관련된 정보전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표집대상 24개교 모두 교내방송, 인터넷, 메신저, DID(또는 RFID) 정보전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원활하게 학생 일과에 필요한 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및 확대학급 실시에 따라 학생 또는 교사의 위치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DID(또는 RFID) 정보전달 시스템 또는 자체 개발한 출결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학생 및 교사의 위치 확인, 수업 현황 등을 손쉽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 호출 등과 같은 민원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 있어서도 표집대상 24개 모두 교과교실제 시설이용 및 생활수칙, 생활지도규정 및 진로상담계획, 홈페이지 이용수칙 등과 같은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교사 면담 결과 교과교실제 실시로 인해 교과별 교사연구실이 전체 교사(校舍)동에 분산 배치되면서 학생 생활지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교내 학교폭력 건수가 교과교실제 시행 이전보다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2 교육과정 영역

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⁹⁾ 현황

표집대상 24개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교과 수¹⁰⁾를 조사한 결과, 2011년 평균 2.9개 교과, 2012년 평균 2.8개 교과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균 3개의 과목을 수준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운영 교과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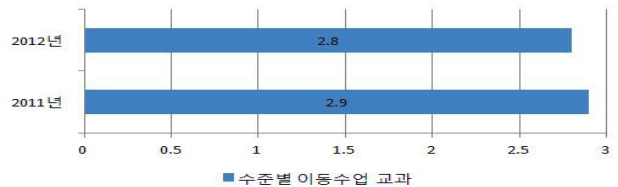


Figure 8. Number of subjects for classes for each student's academic level by year
(그림 8. 연도별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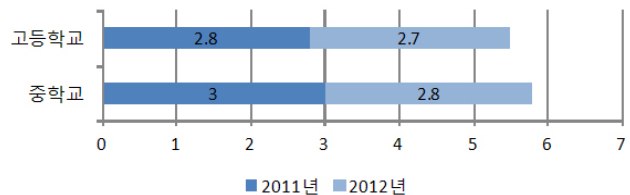


Figure 9. Number of subjects for classes for each student's academic level by school type and year
(그림 9. 학교급별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 수)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 수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1년도의 경우 부산, 인천, 충북이 평균 3.5개 교과를 운영하는데 반해 서울과 충남은 평균 2개 교과만을 실시하였다. 2012년도에도 2011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 1.7개 교과로 오히려 2011년도 보다 수준별 이

-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별로 학습 집단을 재편성하고 자신과 동질 집단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부 교과교실제 운영지침(2012년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 p.9)에 따르면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2012년도까지는 전 학년, 3개 교과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중 2개 교과 이상은 반드시 확대학급(N+N)으로 운영해야 했으나, 2013년도부터는 확대학급(N+N) 운영은 권장사항으로 변경됨. 여기서 확대학급이란 모집단의 학급수보다 학급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확대학급(2+1)이란 2개 학급을 1학급 추가로 늘려 3개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교과 수는 학교 평균으로 산출함. 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교과 및 교과 수가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별 및 계열별로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1~3학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 수 합의 평균으로 산출하였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다수의 교과를 운영하는 학년을 중심으로 문과와 이과와 자연의 경우 1~2학년용, 이과와 자연의 경우 2학년용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과 수 합의 평균을 산출함.

동수업 운영 교과 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모두 교육부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3개 교과 이상을 운영한 시·도교육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9개 지역이었고, 서울, 대전, 경기, 충남의 4개 지역은 교육부 지침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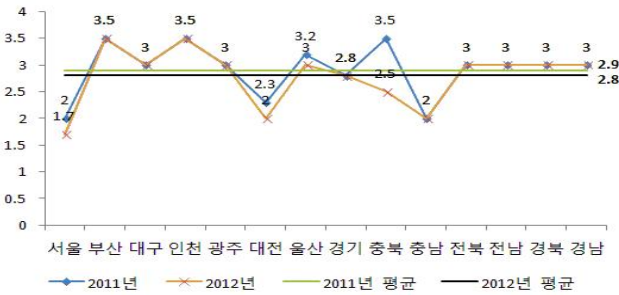


Figure 10. Number of subjects for classes for each student's academic level by region and year
(그림 10. 지역별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교과 수)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학급(N+N) 운영 현황¹¹⁾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지침과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1년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3개 학년, 2개 교과 이상 확대학급(N+N)을 운영한 학교는 표집대상 24개교 중 16개교였으나, 2012년에는 2개교가 줄어든 14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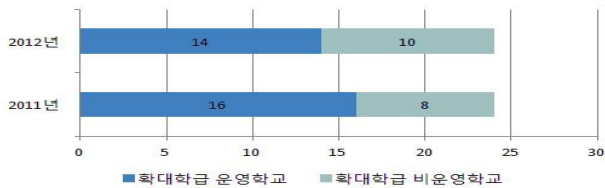


Figure 11. Number of schools managing expanded classes by year
(그림 11. 확대학급 운영 학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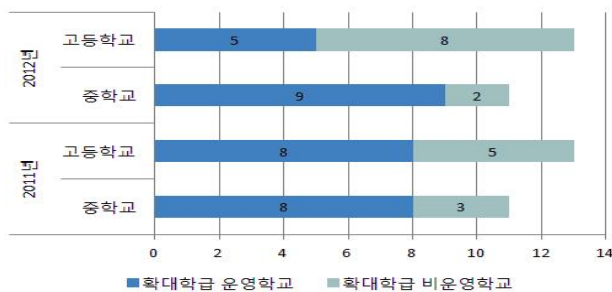


Figure 12. Number of schools managing expanded classes by school type and year
(그림 12. 학교급별 확대학급 운영 학교 수)

11) 교육부 지침(2009년 교과교실제 추진계획, p.11)에 따라 확대학급(N+N)을 3개 학년, 2개 교과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확대학급 비운영 학교로 분류함.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2011년 8개교에서 2012년 9개교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8개교에서 2012년 5개교로 상당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 수에 대한 지역별 편차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입장,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학급(N+N) 운영에 따른 교사 인건비 예산지원 현황, 지역별 교사인력 확보 및 고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확대학급(N+N) 운영학교 수가 중학교는 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력 편차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심화되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학급(N+N) 운영은 보충 또는 심화 과정 운영 등을 통한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수-학습의 기회를 제공 수 있어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더욱 적합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고등학교에서 확대학급(N+N) 운영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학급(N+N) 운영방법과 수업내용이 입시교육이라는 고등학교의 특수성에 부합하여 다양화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블록타임 수업 운영 현황

표집대상 24개교의 2학기 시간표를 분석하여 1주일 당 블록타임 수업 편성 횟수¹²⁾를 조사한 결과, 주요 5개 교과의 경우 2011년 평균 4.7회, 2012년 평균 4.9회를 실시하였고, 전 교과¹³⁾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011년 평균 7.4회, 2012년 8.1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블록타임 수업 운영 횟수를 학교급별로 주요 5개 교과에 한하여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모두 평균 3.4회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평균 5.8회에서 2012년에는 평균 6.1회로 다소 증가하였다.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중학교의 경우 2011년 평균 5.8회에서 2012년 평균 6.1회로,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평균 8.8회에서 2012년 평균 9.8회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블록타임 수업 운영 횟수를 지역별로 주요 5개 교과에

12) 블록타임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실현을 위하여 교과 내용과 수업 방법에 따라 수업시간을 70분, 75분, 80분, 90분, 100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블록타임 편성 횟수는 1주일 당 운영하는 블록타임 수업 횟수의 합을 교과 수로 나눈 평균으로 산출함. 단, 블록타임 운영 교과는 중·고등학교 모두 학년별로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고등학교 모두 1학년 시간표를 기준으로 산출함.

13) 2012학년도 1학년 2학기 시간표에 편성된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함.



Figure 13. Frequency of block-scheduled classes by year (그림 13. 블록타임 수업 빈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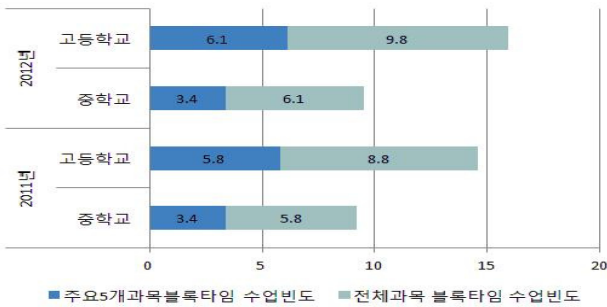


Figure 14. Frequency of block-scheduled classes by school type and year (그림 14. 학교급별 블록타임 수업 빈도 수)

한하여 살펴보면 인천이 2011년 평균 12회, 광주가 2012년 평균 10회로 가장 많이 실시하였고, 충남의 고등학교에서 2011년과 2012년 모두 블록타임 수업 운영을 하지 않아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교과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인천이 2011년 평균 17회, 경기가 2012년 13.6회로 가장 많이 실시한데 반해, 전남이 2011년 평균 2회, 서울이 2012년 3회를 실시하여 블록타임 수업 운영 빈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블록타임 수업 운영 실태 조사 결과가 지역별로 큰 폭의 편차를 보이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교과교실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 시·도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 및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하는 교육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블록타임 수업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서 고무적인 점은 주당 블록타임 운영 횟수가 조금씩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주요 5개 교과와 수업 시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등학교의 블록타임 평균 운영 횟수가 월등히 높다는 점은 블록타임제가 학습 집중도 측면에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¹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블록타임 수업 운영에 관하여 수업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학교는 체험·

14) t-test 검증결과 주요교과 운영의 유의확률은 0.003, 전 교과 운영의 유의확률은 0.006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됨.

활동 중심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심화·몰입 수업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습단계 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에서의 블록타임 수업 운영이 학습 집중도 측면에서 중학교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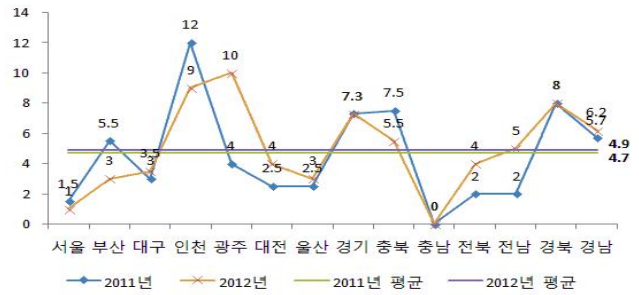


Figure 15. Frequency of block-scheduled classes for the main five subjects by region and year (그림 15. 주요 5개 교과 지역별 블록타임 수업 빈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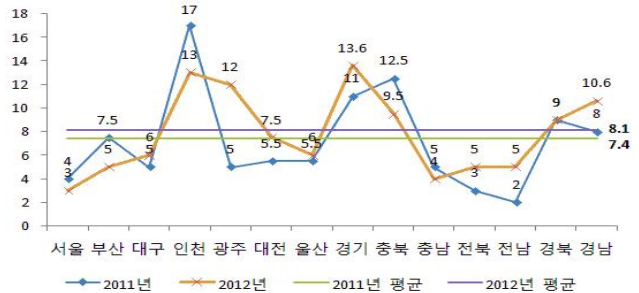


Figure 16. Frequency of block-scheduled classes for all subjects by region and year (그림 16. 전 교과 지역별 블록타임 수업 빈도 수)

4. 결론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영역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교과교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였다. 전국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14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24개교를 표집대상을 선정하고, 실태조사 지표를 개발하여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영역에 대한 방문 조사 및 분석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導出)하였다.

첫째,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교무조직 구성에는 2011년도와 2012년도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업무분장은 교과업무와 행정업무를 완전하게 분리함에 있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행정요원 지원으로 인해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큰 폭으로 경감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매년 시·도교육

청별 행정요원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단위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는 행정요원 수가 감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연수 및 협의회 횟수가 증가하였으나, 학교급별로 분석하면 중학교는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연수 및 협의회를 통한 동료 교사간의 협력 및 교수-학습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대부분의 표집대상 학교에서 교내방송, 인터폰, 메신저, DID(또는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제공, 학생 및 교사의 위치 확인, 수업현황 파악 등을 하고 있었고, 교과교실제 시설이용 및 생활수칙, 생활지도규정 및 진로상담계획, 홈페이지 이용수칙 등과 같은 생활지도 매뉴얼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유도하고 있어, 교과교실제 실시로 인해 학생 생활에 필요한 정보전달 및 학생 생활지도에 유리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표집대상 14개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2011년과 2012년 모두 교육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확대학급(N+N)의 경우 표집대상 24개교 중 2011년 16개교, 2012년에는 14개만이 교육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표집대상 13개교 중 2011년 8개교, 2012년에는 5개교만이 교육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학급(N+N)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입장, 강사 인건비 예산지원 현황, 확대학급(N+N) 운영방법과 수업내용이 입시교육이라는 고등학교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사료된다.

여섯째, 블록타임 수업 빈도수를 조사·분석한 결과,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의 빈도수가 높은 것은 학생 발달단계 및 학습 집중도 측면에서 고등학생에서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도교육청의 교과교실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시·도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 등에 의해 지역별 블록타임 수업 빈도수가 큰 폭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파악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영역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 교과교실제 정책이 도입 단계를 넘어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요원 채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과교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

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학생 및 교사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용자 측면에서 요구되는 환경, 교과교실제 운영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Consulting Guide for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2. 2012 Cases of Schools Managing the Advanced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3. Park, In-Woo, et al., 2012 An Investigation of Schools Managing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and an Analysis of Its Benefi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4. Basic Plan for the Pursuit of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Ministry of Education, 2009
5. Basic Plan for the Overall Expansion of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Ministry of Education, 2011
6. Basic Plan for the Pursuit of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in 2013, Ministry of Education, 2013
7. Bae, Seong-Geun, Tasks and Prospects for the Full Introduction of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for the Vit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Vol. 175 on educa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8. Oh, Byeong-Uk, et al., Current State of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and Measures for its Development, Vol. 9, No. 20-4, position paper of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9. Cho, Jin-Il, Current State of and Future Tasks for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No. 214 Educational Policy Forum of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10. Yoon, Mi-Youn, et al., A Study on Condi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in Schools(Focusing on Environmental Composition),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Journal, Vol. 20, Nos. 3 and 94, May 2013

접수 2013. 7. 30

1차 심사완료 2013. 8. 29

2차 심사완료 2013. 9. 13

2차 재심완료 2013. 9. 25

게재확정 2013. 9. 26